

부모님 잘 모시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제대로 알기

2017. 4.26 (수) 09:00 _ 12:00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영락노인전문요양원

사무국장 최영순 사회복지사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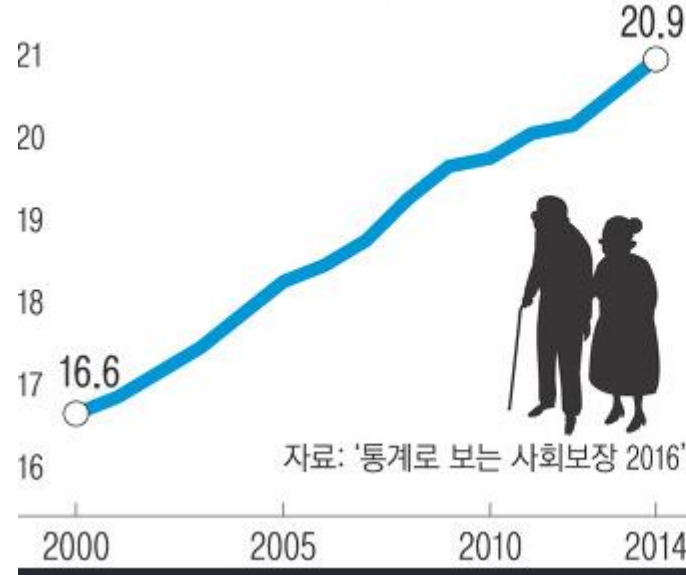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전체 13.2% 차지

출처 : 통계청 '2016 고령자 통계'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내국인)의 13.2%를 차지하는 656만 9천명으로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 약 220만 4천명이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독일(40년), 일본(24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2050년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4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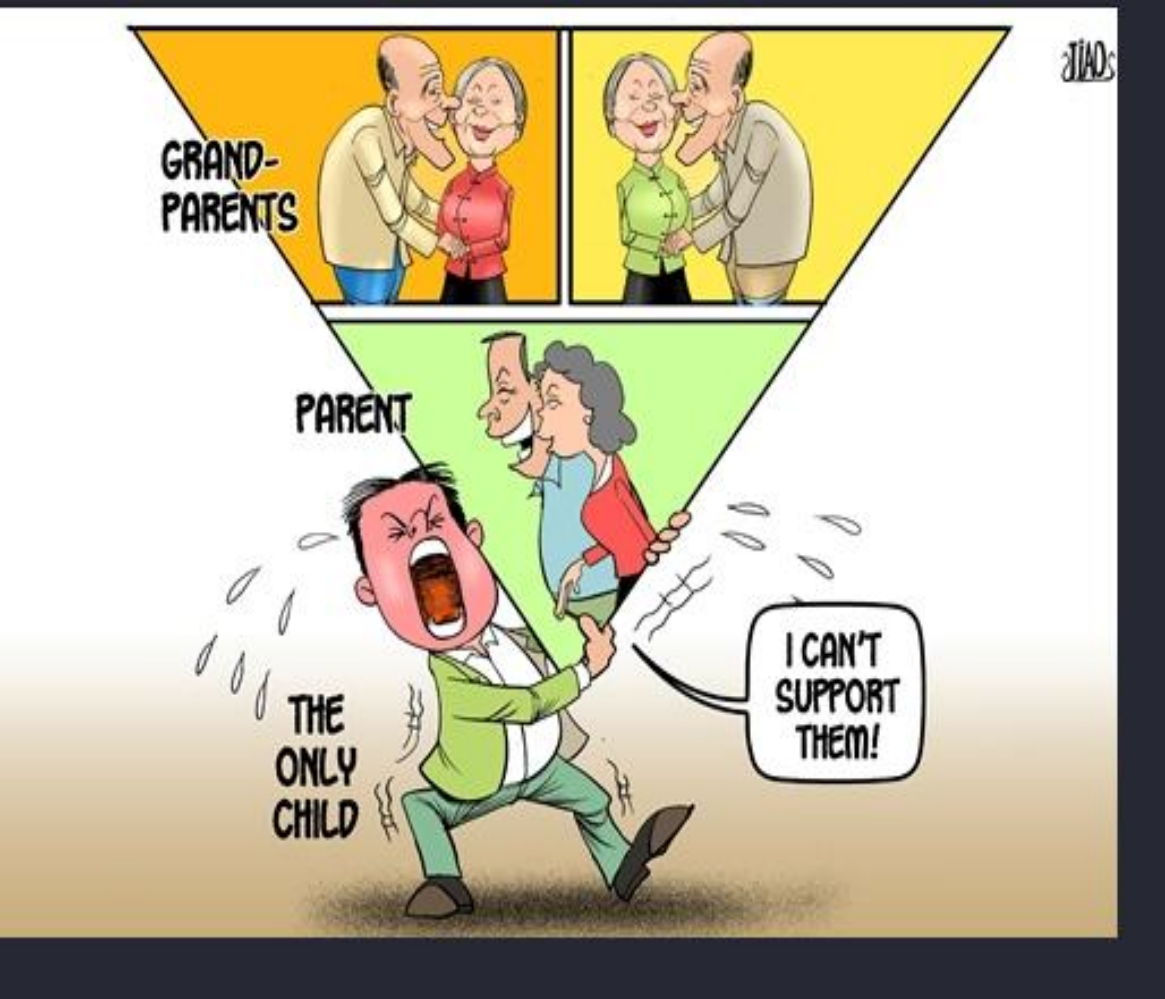
한국인 65세 기대여명



65세 이상 인구 추계

자료: 통계청

구분	인구수	비율
2015년	654만1168	12.8%
2025년	1050만7986	20.0%
2035년	1517만5901	28.7%
2045년	1817만9045	35.6%
2055년	1857만3573	39.2%
2065년	1827만2966	42.5%



GRAND-PARENTS



JIAO

PARENT



THE ONLY CHILD

I CAN'T SUPPORT THEM!

○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

2016년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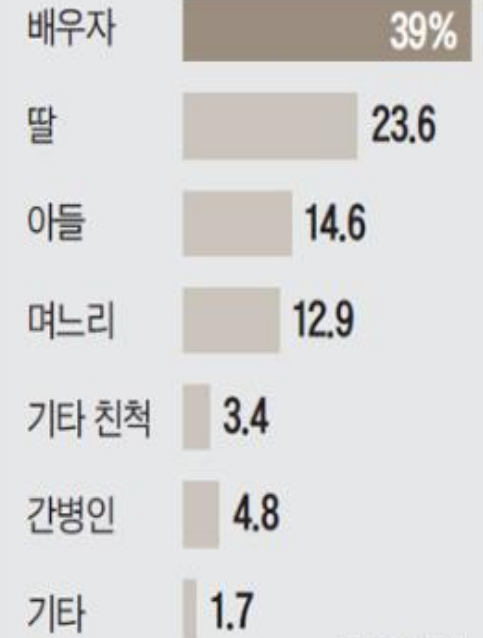


2035년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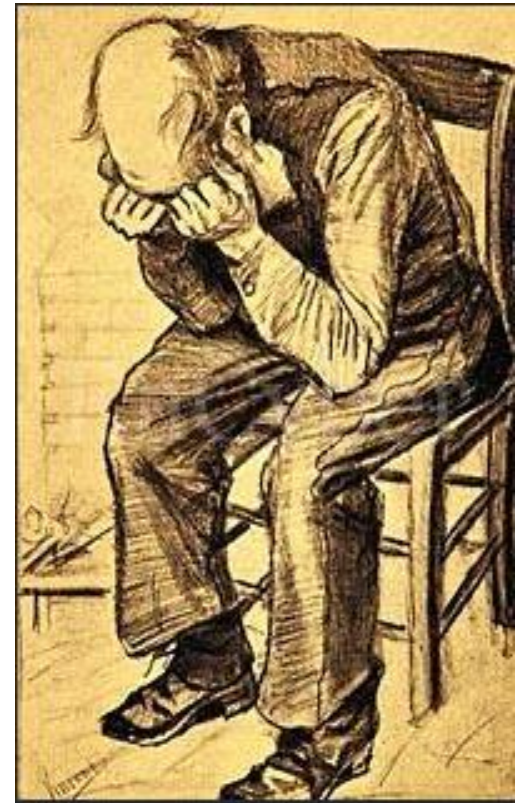
누가 치매 노인 주로 돌보나



자료: 서울시

65세 이상 독거 노인 증가율

(단위 : 명)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보셨나요? 200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이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중인 나라, 200년 노인인구비율이 37.2%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 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광고협약회
한국방송광고공사

노인장기요양
보험 왜 필요할까?

동영상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조치
[요양병원 급증]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내 요양보호 방치, 시설입소 후
연락 두절, 치매 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월100~25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배경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경제활동지원과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적용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수가

장기요양보험료
2008년 7월부터 납부



요양보험수가

1. 장기요양보험 신청조건 및 활용방법



제도소개

민원상담실

알림·자료실

종사자마당

구인·구직

전체메뉴

개인회원 서비스

● 마이페이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회원 서비스입니다.

● 등급판정결과조회

인정등급과 월간도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인정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회원 서비스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 드립니다



회원로그인

공인인증서 이용안내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도움말

통합검색

검색

제도소개, 고시·급여기준조회,
인정신청결과, 등급판정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찾기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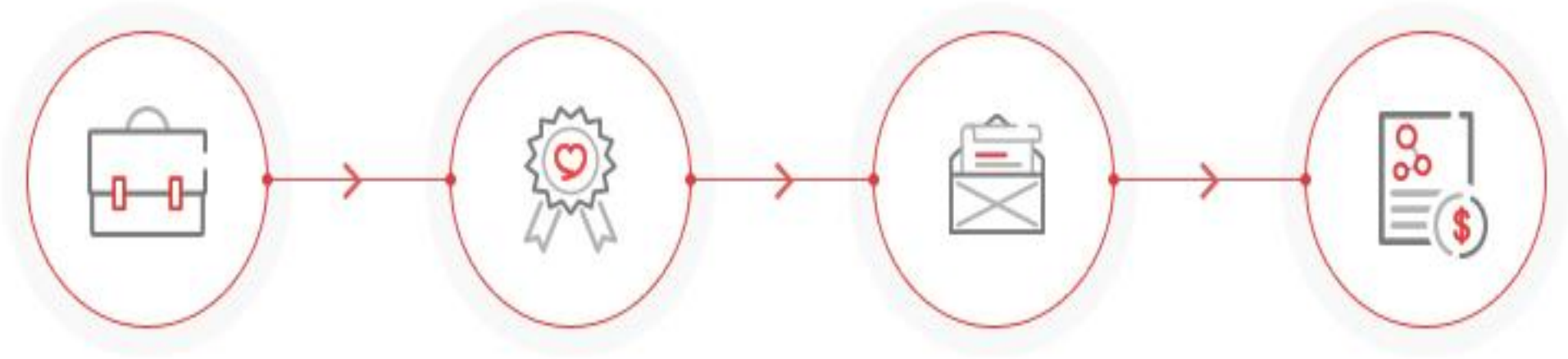
전체

기관명충입력

웹진(소식지)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보험 기관을 이용하려면



0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0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03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0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공단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http://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연령별 등급신청 조건은 만65세 이상의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이 6개월간 어려운 상태이며, 만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을 진단 받으셔야 등급신청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6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산설('15.9.1 시행)

현장 확인을 위한 공단직원 배정

약 1주일 정도 소요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성남북부운영센터 031-729-0260
 - 성남남부운영센터 031-788-4280
 - 경기광주운영센터 031-8026-0180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의 가족 한정함**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홈페이지 신청시 신청인 어르신 또는 보호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어르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공단에 제출해도 무관 (신청서는 공단 지사간 공유)

2. 공단직원현장확인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앉기 · 대변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행동변화 (14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상 · 환청, 환각 · 슬픈상태, 울기도함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 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지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영양 · 욕창간호 · 압성통증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상지 · 좌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 관절 · 고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꿈치 관절 · 무릎 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목 및 수지 관절 · 발목 관절

3. 등급판정 위한 의사소견서 요구

의사소견서 제출

* 만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질환 확인 유무, 만 65세 이상도 제출
단, 병원에 내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공단에 의사소견서 제출

어르신의 심신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등급판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자의 요청시에만 제출)

의사소견서 내용

근력, 관절운동범위, 인지기능, 문제행동 유무, 의학적 치료 필요성 유무 등
※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안내해 주는 기간 내에 제출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에서 발급비용 80%를 부담 어르신(보호자) 20%만 부담.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공단에서 발급

4.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 위원회 심사

* 보통 1달에 2회 개최(전문의와 사회복지 담당 전문가가 등급부여 논의)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판정시 어르신의 수발자 유무,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음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와상상태(중증) 자립생활 거의 불가능 상태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준 와상, 치매/ 세수,양치,화장실 사용 대부분 도움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거동불편, 치매/ 옷 입기, 세수 등 부분도움 (가사,야외활동 다른 사람 도움)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옷 입기는 가능하나 세수 등이 어려운 상태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경증의 치매어르신 _ 일상생활수행능력이 있음

등급판정기한 _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판정 완료함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방문조사를 하여 점수를 산정하게 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이 정해진다고 해요.

등급판정위원 등급결정과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어르신(수급자)은 수령 받게 됩니다

통보 방법	우편, 방문, 내방 전달, 휴대폰 문자
통보 기간	등급판정의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 내용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이후에는 연장(갱신)신청, 등급 변경신청이 있을 수 있음)

1. 장기요양등급 최초 판정 받은 경우 _ 최초 1년간 유효하고 재검사를 통해 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2. 재 등급 심사 경우 _ 1등급 재판정은 향후 4년간
2등급~4등급은 향후 2년간
5등급 경우 향후 2년 자격유지

등급판정결과 이의신청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이의신청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성남북부운영센터 031-729-0260
성남남부운영센터 031-788-4260
경기광주운영센터 031-80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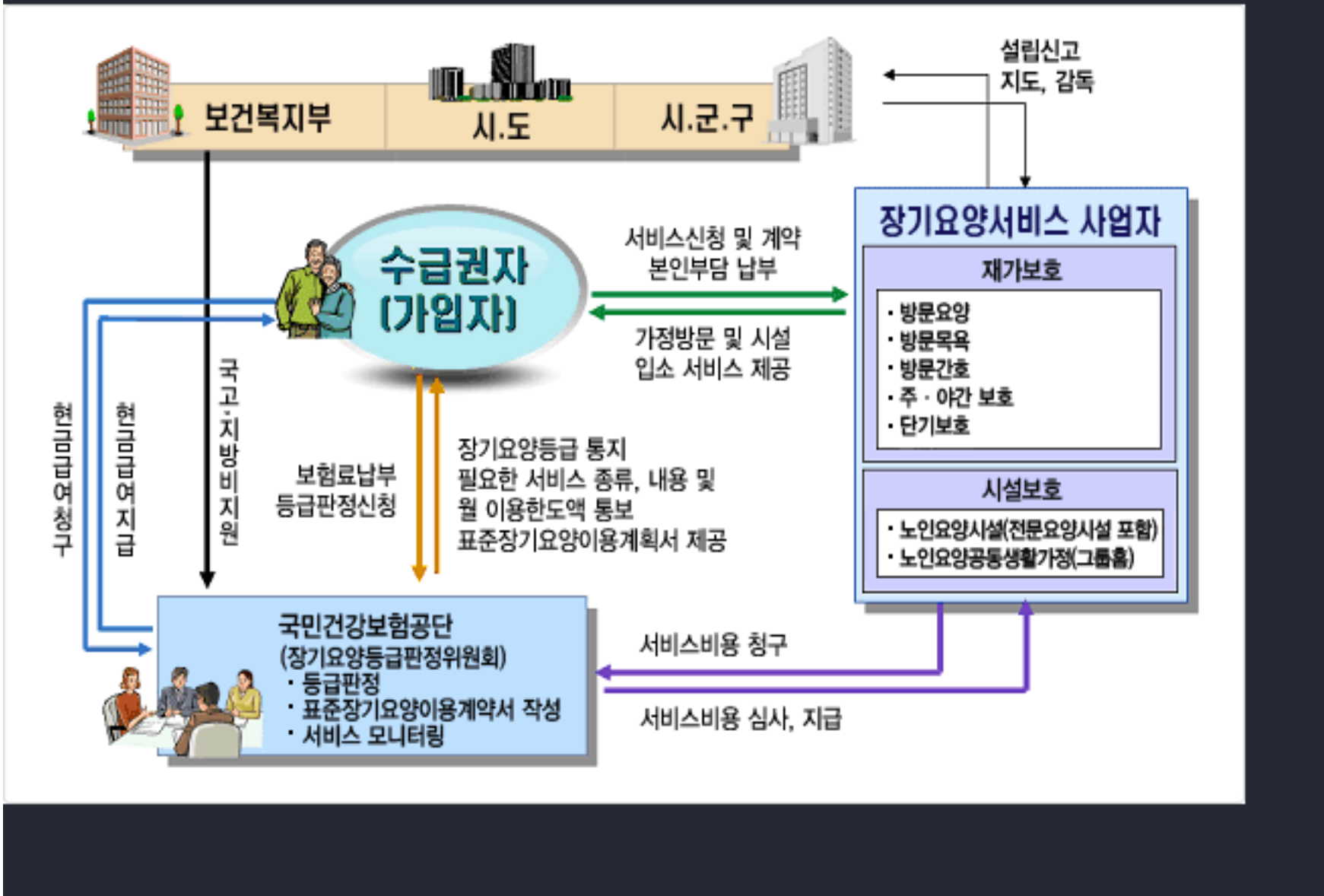
등급판정 서류 수령 및 교육

1. 장기요양인정서 : 인정번호, 등급, 이용기간이 명시된 카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이용가능금액, 재가 또는 시설급여 유무, 장기요양필요영역 등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은 일반인, 의료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에 해당 명시 금액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100% 본인부담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복지용구와 불가능한 복지용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이 불가능한 복지용구를 희망할 경우 급여변경신청을 공단에 제출하여 변경신청
4. 관내이용기관 서비스 목록 : 재가 및 입소시설
5. 장기요양서비스 설명서 : 이용방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서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기관 서비스이용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 본인 일부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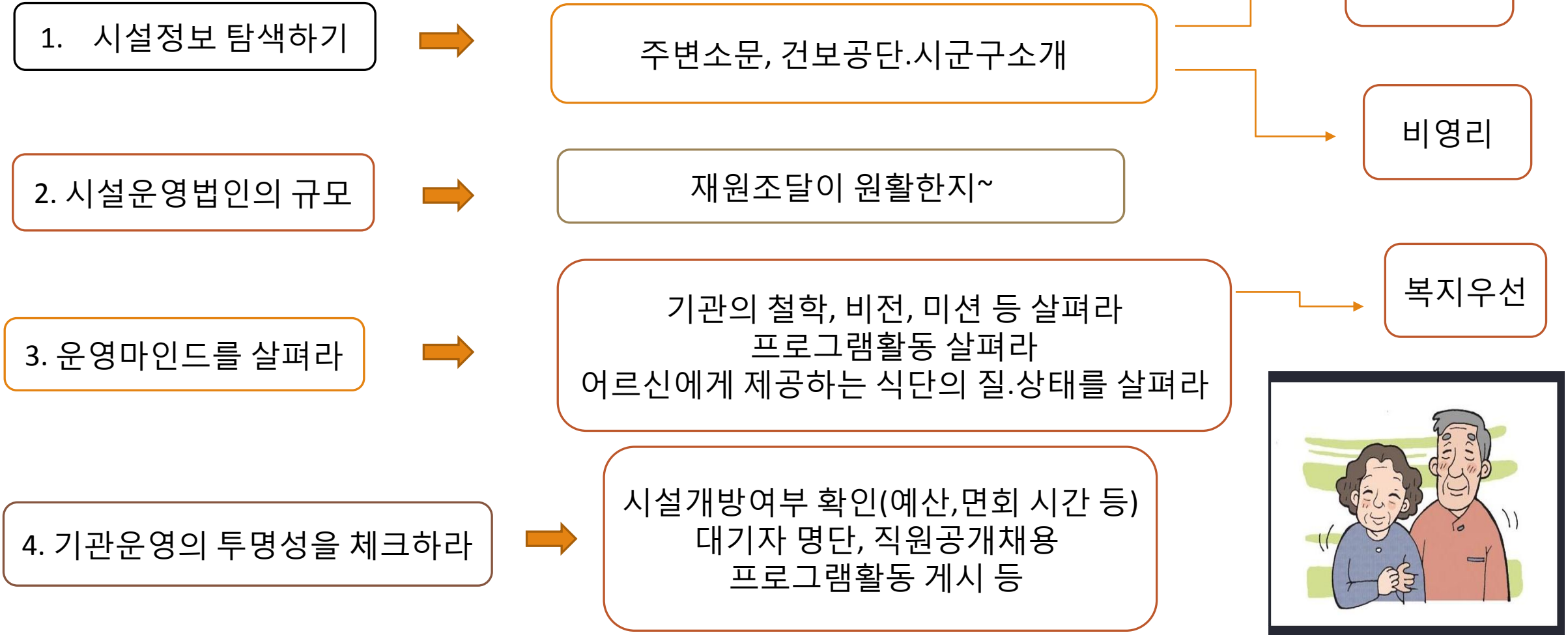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
급여액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2. 장기요양보험기관 잘 선택하는 방법



장기요양보험기관 선택은 이렇게



5. 직접 방문해 분위기를 파악하라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서로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지, 행동이 자유로운지 등 활기차고 편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으로 골라야 한다.



청결(위생)상태
입소상담을 통한 기관 분위기 파악
어르신, 직원의 표정을 살펴라

6. 밝은 환경인지를 살펴라 - 실내.외 환경 (청결,산책로등)

거동이 불편해 대부분 시간을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햇볕이 잘 들고 환한 환경이 좋다. 특히 치매환자는 어두운 곳에서 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해야 한다. 또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응급 의료시설 및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챙겨야 한다.



위생, 청결상태
아주 중요함
안전한 환경

7. 운영자와 직원들의 전문성을 체크하라

원장, 영양보호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인력이 정식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혹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8. 가족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라(면회공간)

가족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지내는 환자와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8. 어르신중심의 케어(존엄케어)를 하는지 살펴라



10. 기타체크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의료서비스와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기관

응급상황발생시 빠른 대처능력이 있는 기관

질병관리 및 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춘 기관

면회방문이 자유로운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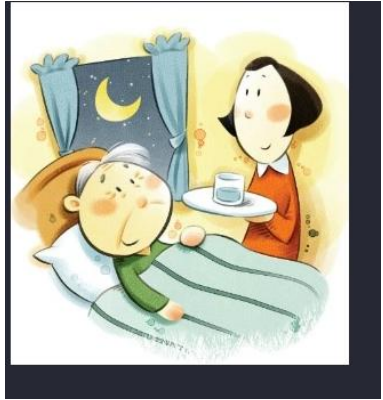
시설방문거리가 가까운 곳

11. 건보공단 평가 기관을 참고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한 우수 요양기관을 눈여겨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검색해볼 수 있다. 평가 등급은 상위 점수부터 A~E까지 5등급으로 분류돼 있어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으며, 규모와 급여 종류 등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좋은 기관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보험 한계와 극복방안





10년이 지난 지금의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한계

장기요양기관 시설 운영 신고제

기관운영주체의 다양화

장기요양보험요율 6.55%

요양보험적정수가 보장 안되면 시설운영 존폐위기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 요양원의 공실율 급증

건보공단 현지조사

요양보호사 2.5 :1

운영관리주체-건강보험공단

극복은 어떻게?

허가제

시설운영주체 시군구 선택

장기요양보험요율의 현실화

요양보험적정수가 보장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현장지도점검

2.0:1 -현실화

시군구

4. 내 부모 건강상태 맞는 올바른 장기요양기관 선택 이해하기





치료가 필요한지?




요양병원

요양이 필요한지?



요양원

장기입소보호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재택서비스가 필요한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이용시설 서비스가 필요한지?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포함).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복지용구가 필요한지?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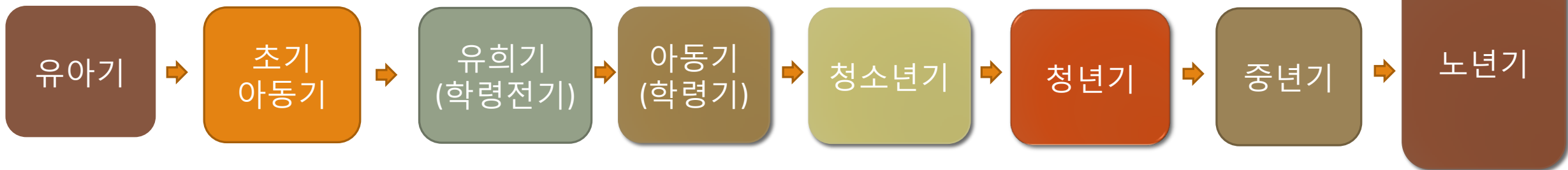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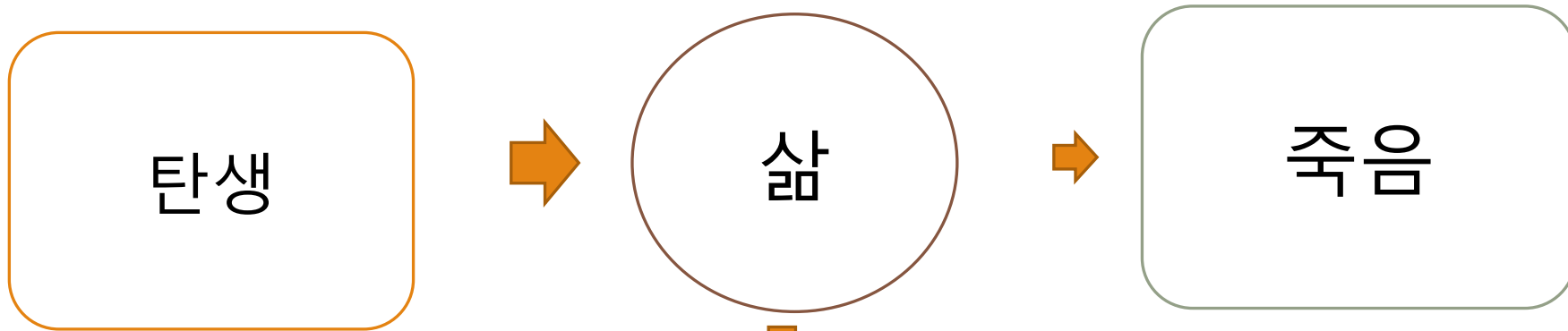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치매 정도
건강수준



기관선택이 달라진다



복지아카데미 복지상식 - 장기요양보험 제대로 알기 강의를 마치면서



장기요양기관 정보 미리 알아두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설계 미리 준비
소통하기



유년기에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
 ?년기에는 실력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한다.
 중장년기에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한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돈이다.
 반드시 부모의 통장을 만들어 드려라.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 수 있는 가장 큰 막담은
 "너도 늙어 봐라"임을 잊지 말아라.
 어른은 한번 되고 아이는 두 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 보다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다.
 속스럽거든 편지라도 써라.

보약을 지어 드리기 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라.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짐을 잊지 마라.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를 한다.
 부모님에게 웃음의 잔칫상을 차려 드려라.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일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들지 말라.
마음 편한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 드려라.

쓰잘데 없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 드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진지하게
 잘 들어 주어야 한다.
 노인네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말 상대자다.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부모님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한다.
 -생텍쥐페리-

죽음은 인생에 있어 피할수 없는 통과 의례다.
그러기에 또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답다.
생애를 멋지게 정리해 드려라.

나이를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텃밭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라.
 가정안에 부모말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 주라.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것이다.
 부모에게 밝은 낮빛으로 위로를 드려야 한다.